

# 전남 동부지역 물리치료사의 근무환경 및 직무 만족도 조사연구

순천청암대학 물리치료과

이형수 · 송화경 · 김한나 · 문신애 · 박화정 · 허은영 · 신인수 · 양희송 · 정찬주

## The Study Work Conditions and Job Satisfaction of Physical Therapist in Jeonnam East area

Lee Hyoung-Soo, RPT, M.Sc · Song Hwa Kyoung, RPT · Kim Han Na, RPT ·  
Mun Sin Ae, RPT · Park Hwa Jung, RPT · Heo Eun Young, RPT ·  
Sin In Soo, RPT · Yang, Hoi-song, RPT, M.Sc · Jeong, Chan-Ju, Ph.D.

*Dept. of Physical Therapy, College of Suncheon Cheongam*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the work condition and the degree of job satisfaction of the physical therapist in Jeonnam East area. This study consisted of 120 physical therapists who were working in hospital located in Jeonnam East area from May, 19 to June 16, 2004. The data for analysis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 survey. The major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the analysis were factor analysis,  $\chi^2$ -tes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ummarized result are as follows;

1. As for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ed physical therapists was male 61(50.83%) and female 59(49.16%), majority was 26-30 in age. Most of the respondent worked in local clinics(62.5%). Also most of the respondent educated college graduation(68%). While the service period less than 12 months accounted for 41.7%.

2. The average marks by their job satisfaction factors indicated 56.7% for duty importance, the relation with the patient accounted for 53.3%, the mending education for 18.3%, the equipment & institution for 20.9%. The average job satisfaction score was 3.04.

3. The comparative analysis of job satisfaction and general characteristics among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revealed tha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between 31-40years and 41years or more in ability knowledge & technique satisfaction.

4. The comparative analysis of job satisfaction and work conditions among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revealed tha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local clinics and hospital, between yosu&goheung and beolgyo in the mending education satisfaction.

5. Contributing factors for the job satisfaction in Physical therapist were welfare system, the relation with the patient, the service time per patient, mending education, the number of the patient.

**Key Words:** Physical therapist, Work conditions, Job satisfaction

## I. 서 론

우리나라의 물리치료사들은 일본이나 미국보다 사회적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업무량, 보수, 후생복지, 휴가 등과 같은 복지차원도 매우 열악하다(허영배, 2002; 하경기, 2000; 김희권, 1993; 최덕호, 1992; 전제균, 1990). 개인은 동기나 능력에 맞는 근무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개인의 능력이 근무환경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직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직무만족과 관련이 되어 있으며, 이것은 환자에게 양질의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막대한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이상미, 1995; McDermott, 1984)시키게 되기 때문에 물리치료사의 근무 환경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물리치료사는 건강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또 그 역할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이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는 업무의 질, 종사의욕 그리고 사명감 등에 영향을 미치며 효과적인 역할 수행과 전문인력 발전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전제균, 1991). Kahn(1965)은 직무만족과 생산성은 분리할 수 없는 중요한 변수라고 강조하였고, Porter와 Lawler(1968)도 직무 만족정도가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직무 만족은 자율성 부족(Blegen, 1993), 과다업무(McCraine et al, 1987)등의 개인의 욕구나 동기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과 직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Porter(1961)는 Maslow의 욕구체계론(Need hierarchy)을 근거로 관리인의 직무 만족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를 했는데 그는 직무 만족이 기대했던 보상의 정도와 실제로 얻은 보상의 차가 적을 때 직무만족도가 높고, 이 차이가 클 때 불만이 온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사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환자의 장애 정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에 적합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리치료사가 직무에 만족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리치료사가 직무에 만족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환자에게 양질의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적의 직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물리치료사가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감이 없을 때에는 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물리치료를 기대하기 어렵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발전을 꾀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에 속하는 여러 직종에 관한 연구와 전국단위의 물리치료사의 업무환경과 업무량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전남 동부권 지역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전남 동부권 지역의 물리치료사에 대한 업무환경과 업무량을 평가하여 이들의 작업환경과 근무조건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질 목적으로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 II.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남 동부육권 지역(고흥, 광양, 구례, 별교, 순천, 여수)내 종합병원, 병원, 일

반의원(정형외과, 신경외과, 외과)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의 근무환경 및 직무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4년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로 사전조사 하였고, 본 조사는 동년 5월 19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남 동부 육권 지역의 물리치료사가 있는 병원 50%를 층화추출법을 이용하여 물리치료사 129명을 선정하여 설문지 129부를 배포하여 무응답 9부를 제외한 120부를 회수하였다.

## 2. 연구도구 및 방법

물리치료사의 근무환경과 직무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전제균(1991), 어경홍과 이충휘(1986), 최계영(1999), 허영배 등(2002), 안소윤 등(2002)의 설문지를 참조하여 작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물리치료사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다음 자기 기입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는 순천 지역 내 8개 병원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19부를 배포, 회수하여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지 구성내용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문항, 근무 환경 10문항, 직무 만족도 15문항으로 총 2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직무 만족의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만족'에 5점을 주었고 '매우 불만족'에 1점을 주어 점수가 낮을 경우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설문지의 분석에서는 만족도에 대한 항목을 매우 만족, 만족을 만족으로 매우 불만족, 불만족을 불만족으로 정의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 3. 분석방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근무환경, 직무 만족도에 관련된 자료를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근무환경과 일반적 특성은  $\chi^2$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의 설명력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확인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10.0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유의수준은  $P<0.05$ 로 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물리치료사 중에서 연구시점 현재에 전남 동부권 지역에 병의원에 종사하는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근무환경, 직무 만족도를 조사하여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만족도와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여 전국단위의 물리치료사 근무환경, 직무만족도와 비교하였다.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 총 120명중 남자는 50.8%이며 여자는 49.2%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는 26~30세 군이 35%로 가장 많았으며, 41세 이상이 5.8%로 가장 낮았다. 최종학력은 대학 졸업이 68%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은 30%, 대학원 졸은 1.7%순이었다. 물리치료사 수는 1명이 25.8%로 가장 많았고, 5명 이상이 15%로 가장 적었다. 근무처는 일반의원이 62.5%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이 19.2%, 병원이 18.3%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병원의 근무경력은 1~12개월이 41.7%로 가장 많았으며, 31~48개월이 10%로 가장 적었다<표 1>. 이러한 결과는 부산지역 물리치료사의 근무실태분석을 실시한 허영배 등(2002), 안소윤 등(2002)의 연구에서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근무경력이 5년 미만 10년(82.3%)이 가장 많이 응답한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근무시간의 경우에는 노동법에 의하면 법정 근로 시간은 1주 44시간이나 전남 동부권 물리치료사의 평균 근무시간은 약 51시간이고, 44시간 이상 근무하는 치료사는 89.8%(약 107명)를 차지하여, 허영배(2002), 이충휘(1990), 김명훈(2001)의 결과와 일치하여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의료보호심사기준에 의하면 치료 환자수가 의료보험 환자를 포함하여 1인 1일 30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35인 이상을 치료하는 물리치료사가 48.3%를 차지하고 있어, 허영배 등(2002), 안소윤 등(2002)의 연구에서 결과와는 다르게 조사되어 전남 동부 육권지역 물리치료사들이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이로 인해 과중한 업무에 의한 전문적인 치료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었다. 연봉과 관련 된 항목에서는 과거에 조사되었던 라기용 등(1998), 전제균(1991)의 연구에서 보다는 향상되었으나, 비슷한 시기에 조사되었던 허영배 등(2002), 안소윤 등(2002)의 연구에서와 같이 1~3년 경력의 물리치료사 연봉 1800~2400만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지역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타 지역의 근무환경과 다르게 종합병원 근무자의 연봉이 개인병원의 연봉보다는 적게 조사되어, 전남 동부육권 지역이 도농 복합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외곽지역으로 갈 수록 연봉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와 의원급 근무자의 연봉이 높게 나온 것으로 사료되었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물리치료사의 직무 만족요인에 대하여 가장 높은 만족을 보인 것은 직업가치로 56.7%를 나타내었고 환자와의 신뢰형성이 53.3%의 만족을 보였다. 보수교육은 18.3%로써 가장 낮은 만족을 보였으며 기자재 및 시설은 20.9%의 만족을 보였다. 지식기술 적용과 직업 전망은 각각 42.5%, 33.4%로 낮은 만족을 보였다. 따라서 직무 만족도는 평균 3.04(5점 척도)점으로 측정되어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 이러한 결과는 평균 2.52(4점 척도)로 조사된 허영배(2002), 평균 3.19(5점 척도)점으로 조사된 전제균(1991), 1.96(3점 척도)으로 나타난 한금림(1994), 그리고 2.96(5점 척도)으로 측정된 김명훈(2001)과 비슷한 연구 결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직업전망의 만족도를 보면 남자가 20%, 여자가 13.4%로 남자가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 ). 지식기술 적용의 만족도를 보면 남자가 28.3%, 여자가 14.2%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남자가 10.0%, 여자가 8.4%로 남자가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 ).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가 없어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안소윤 등(2002)이 조사한 결과에서 성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대부분 일치하였다.

표 1.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N=120)	구성비(%)
성별	남	61	50.83
	여	59	49.16
결혼	유	50	41.7
	무	70	58.3
연령	25세 이하	31	25.83
	26-30세	42	35
	31-40세	40	33.33
	41세 이상	7	5.83
최종학력	대학졸	82	68.3
	대학교졸	36	30
	대학원졸	2	1.7
물리치료사 수	1명	31	25.8
	2명	25	20.8
	3명	25	20.8
	4명	21	17.5
	5명 이상	18	15
근무처	종합병원	23	19.2
	병원	22	18.3
	일반의원	75	62.5
근무처 소재지	고흥	19	15.8
	광양	12	10
	구례	3	2.5
	별교	5	4.2
	순천	40	33.3
	여수	41	34.2
근무기간 (현재병원)	1-12개월	50	41.7
	13-30개월	41	34.2
	31-48개월	12	10
	49개월 이상	17	14.2
일주일 근무시간	44시간이하	33	27.5
	45-50시간	15	12.5
	51-55시간	28	23.33
	56시간이상	44	36.66
연봉	1800만원 미만	28	23.3
	1800-2400만원	53	44.2
	2400-3000만원	32	26.7
	3000만원 초과	7	5.8

표 2. 조사대상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요인별 만족도

만족 요인	만족 N(%)	보통 N(%)	불만족 N(%)	계 N(%)
직업전향	40(33.4)	10(8.3)	70(58.3)	120(100)
지식기술	56(42.5)	27(22.58)	42(35.0)	120(100)
직업가치	68(56.7)	38(31.7)	14(11.7)	120(100)
기자재 및 시설	25(20.9)	63(52.5)	32(26.8)	120(100)
환자와 신뢰형성	64(53.3)	50(41.7)	6(5.0)	120(100)
보수교육	22(18.3)	49(40.8)	49(40.8)	120(100)

연령과 만족요인에 대한 만족도와는 25세 이하 26-30세, 31-40세, 41세 이상의 4개의 군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직업전향에 대한 만족도는 31-40세 군에서 1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1세 이상 군이 3.3%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P>0.05$ ). 지식 기술 적용에 대한 만족도는 31-40세 군이 1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1세 이상 군이 5.0%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 환자와의 신뢰형성에 대한 만족도는 26-30세 군이 1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1세 이상 군이 5.9%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 구체적인 내용은 <표 4>와 같다.

결혼상태별 만족요인 따른 만족도 분석은 기혼과 미혼 두 군으로 구분하여 <표 5>와 같이 분석하였다. 직업전향에 대한 만족도는 기혼이 18.3%, 미혼이 15.0%로 기혼이 미혼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 직업가치에 대한 만족도는 기혼이 26.7%, 미혼이 30.0%로 미혼이 기혼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 환자와의 신뢰형성에 대한 만족도는 기혼이 25.8%, 미혼이 27.5%로 미혼이 기혼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 구체적인 내용은 <표 5>와 같다.

최종학력별 만족요인에 따른 만족도는 학력을 대학졸, 대학교졸, 대학원졸의 3개 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직업전향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졸이 1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졸은 0.8%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안소윤 등(2002)의 연구결과에서처럼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과 일치하였고, 이지현과 손애리(2003)의 연구에서 대학원 졸업자의 직무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결과는 학력이 높아져도 보수수준이나 지식기술 적용이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불만족한 것으로 사료되나 통계학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 ). 지식기술 적용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졸이 2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졸은 1.6%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 ). 직업가치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졸이 2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졸은 1.6%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 ). 구체적인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3. 성별에 따른 직무 만족도

만족요인	만족도	성별 N(%)		
		남	여	
직업전향	불만족	31(25.8)	39(32.5)	$\chi^2=5.485$ P = 0.241
	보통	6(5.0)	4(3.3)	
	만족	24(20.0)	16(13.4)	
지식기술 적용	불만족	14(11.7)	28(23.4)	$\chi^2=10.711$ P = 0.030
	보통	13(10.8)	14(11.7)	
	만족	34(28.3)	17(14.2)	
직업가치	불만족	7(5.9)	7(5.9)	$\chi^2=0.524$ P = 0.971
	보통	19(15.8)	19(15.8)	
	만족	35(29.1)	33(27.5)	
기자재 및 시설	불만족	16(13.3)	16(13.3)	$\chi^2=0.566$ P = 0.967
	보통	31(25.8)	32(26.7)	
	만족	14(11.7)	11(8.2)	
환자와 신뢰 형성	불만족	1(0.8)	5(4.1)	$\chi^2=7.457$ P = 0.114
	보통	21(17.5)	29(24.2)	
	만족	39(32.5)	25(20.9)	
보수교육	불만족	21(17.5)	28(23.4)	$\chi^2=2.781$ P = 0.595
	보통	28(23.3)	21(17.5)	
	만족	12(10.0)	10(8.4)	

표 4. 연령에 따른 직무 만족도

만족요인	만족도	연령 N(%)				
		25세 이하	26-30세	31-40세	41세 이상	
직업전향	불만족	21(17.5)	23(19.2)	23(19.2)	3(2.5)	$\chi^2=7.096$ P = 0.851
	보통	3(2.5)	5(4.2)	2(1.7)	0	
	만족	7(5.8)	14(11.7)	15(12.5)	4(3.3)	
지식기술 적용	불만족	19(15.8)	12(10.0)	11(9.2)	0	$\chi^2=36.528$ P = 0.00
	보통	5(4.2)	14(11.7)	7(5.8)	1(0.8)	
	만족	7(5.8)	14(13.4)	22(18.4)	6(5.0)	
직업가치	불만족	3(2.5)	4(3.3)	7(5.9)	0	$\chi^2=13.195$ P = 0.355
	보통	13(10.8)	13(10.8)	9(7.5)	3(2.5)	
	만족	15(12.5)	25(20.5)	24(20.0)	4(3.3)	
기자재 및 시설	불만족	6(5.0)	11(9.2)	12(10.0)	3(2.5)	$\chi^2=7.394$ P = 0.830
	보통	19(15.8)	23(19.2)	19(15.8)	2(1.7)	
	만족	6(5.0)	8(6.7)	9(7.5)	2(1.7)	
환자와 신뢰형성	불만족	5(4.1)	0	1(0.8)	0	$\chi^2=23.585$ P = 0.023
	보통	14(11.7)	19(15.8)	17(14.2)	0	
	만족	12(10.0)	23(19.2)	22(18.4)	7(5.9)	
보수교육	불만족	15(12.5)	16(13.3)	16(13.3)	2(1.6)	$\chi^2=12.194$ P = 0.430
	보통	9(7.5)	18(15.0)	20(16.7)	2(1.7)	
	만족	7(5.8)	8(6.7)	4(3.3)	3(2.5)	

표 5. 결혼 상태에 따른 직무 만족도

만족요인	만족도	결혼상태 N(%)		
		미혼	기혼	
직업전향	불만족	47(39.1)	23(19.2)	$\chi^2=9.810$ P = 0.044
	보통	5(4.2)	5(4.2)	
	만족	18(15.0)	22(18.3)	
지식기술 적용	불만족	29(24.1)	13(10.8)	$\chi^2=8.964$ P = 0.062
	보통	17(14.2)	10(8.3)	
	만족	24(20.0)	27(22.5)	
직업가치	불만족	6(5.0)	8(6.7)	$\chi^2=9.863$ P = 0.043
	보통	28(23.3)	10(8.3)	
	만족	36(30.0)	32(26.7)	
기자재 및 시설	불만족	13(10.9)	19(15.9)	$\chi^2=8.752$ P = 0.068
	보통	43(35.8)	20(16.7)	
	만족	14(11.6)	11(9.1)	
환자와 신뢰형성	불만족	5(4.1)	1(0.8)	$\chi^2=8.041$ P = 0.09
	보통	32(26.7)	18(15.0)	
	만족	33(27.5)	31(25.8)	
보수교육	불만족	29(24.1)	20(16.7)	$\chi^2=1.545$ P = 0.819
	보통	28(23.3)	21(17.5)	
	만족	13(10.8)	9(7.5)	

표 6. 최종학력에 따른 직무 만족도

만족요인	만족도	최종학력 N(%)			
		대학졸	대학교졸	대학원	
직업진향	불만족	52(43.3)	17(14.1)	1(0.8)	$\chi^2=10.918$ P = 0.206
	보통	7(5.8)	3(2.5)	0	
	만족	23(19.2)	16(13.3)	1(0.8)	
지식기술 적용	불만족	34(27.5)	8(6.7)	0	$\chi^2=13.939$ P = 0.083
	보통	16(13.3)	11(9.2)	0	
	만족	32(26.6)	17(14.2)	2(1.6)	
직업가치	불만족	10(8.3)	4(3.3)	0	$\chi^2=8.225$ P = 0.412
	보통	26(21.7)	12(10.0)	0	
	만족	46(28.3)	20(16.6)	2(1.6)	
기자재 및 시설	불만족	26(21.7)	6(5.0)	0	$\chi^2=13.573$ P = 0.094
	보통	41(34.2)	22(18.3)	0	
	만족	15(12.5)	8(6.7)	2(1.7)	
환자와 신뢰 형성	불만족	5(4.1)	1(0.8)	0	$\chi^2=10.060$ P = 0.261
	보통	33(27.5)	17(14.2)	0	
	만족	44(36.7)	18(15.0)	2(1.6)	
보수교육	불만족	37(30.8)	12(10.0)	0	$\chi^2=6.149$ P = 0.631
	보통	32(26.7)	16(13.3)	1(0.8)	
	만족	13(10.8)	8(6.7)	1(0.8)	

### 3. 근무환경에 따른 직무만족도

근무환경에 따른 직무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물리치료사 수별 직업진향에 따른 만족도는 2명군이 1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명군이 4.1%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안소윤 등(2002)이 조사한 대형 병원 근무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는 다른 결과로 조사되었고,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 보수교육에 따른 만족도는 3명군이 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명 이상 군이 1.7%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 구체적인 내용은 <표 7>과 같다.

근무처별 만족요인에 따른 만족도비교는 근무처를 종합병원, 병원, 일반의원의 3개 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직업진향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의원이 1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병원은 5.0%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 ). 지식기술 적용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의원이 1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병원은 9.1%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 직업가치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의원이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병원은 8.3%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 기자재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의원이 1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병원은 3.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지현과 손애리(2003)의 연구에서 일반의원에 일하는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았는데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고, 이는 전남 동부권 지역의 종합병원이 기술 적용, 기자재 및 시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종합 병원 근무자가 연봉이 더작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표본이 병원과 의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로 편중되어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19.2%)의 표본이 작아 연구의 제한점으로 작용하였다. 어경홍과 이충휘의 연구(1986)에서는 종합병원의 근무자가 높은 만족을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 동부권 지역의 종합병원이 준 종합병



원으로 일반의원에 비해 보수수준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05$ ). 환자와의 신뢰형성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의원이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병원은 8.3%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05$ ).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종합의원이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병원은 5.0%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 구체적인 내용은 <표 8>과 같다.

근무처 소재지별 만족요인에 따른 만족도는 근무처 소재지를 고흥, 광양, 구례, 벌교, 순천, 여수의 6개 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직업 전향에 대한 만족도는 순천이 1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벌교가 0.8%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05$ ). 지식기술 적용에 대한 만족도는 순천이 1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례가 0%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05$ ). 직업 가치에 대한 만족도는 순천이 1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례가 0.8%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05$ ). 기자재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순천이 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례가 0%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 < 0.05$ ). 환자과 신뢰형성에 대한 만족도는 순천이 1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례가 0.8%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05$ ).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여수와 고흥이 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벌교가 0%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 < 0.05$ ). 구체적인 내용은 <표 9>와 같다. 이러한 결과는 타 지역에 비해 여수, 고흥 지역 물리치료사의 보수교육이 체계적인 진행이 이루어져서 된 것으로 사료된다.

표 7. 물리치료사 수에 따른 직무 만족도

만족요인	만족도	물리치료사 수 N(%)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직업전향	불만족	21(17.5)	11(9.1)	18(15.0)	13(10.8)	7(5.9)	$\chi^2=30.751$ P = 0.014
	보통	1(0.8)	0	2(1.7)	3(2.5)	4(3.3)	
	만족	9(7.5)	14(11.6)	5(4.2)	5(4.1)	7(5.8)	
지식기술 적용	불만족	13(10.8)	9(7.5)	8(6.6)	6(5.0)	6(5.0)	$\chi^2=22.340$ P = 0.133
	보통	8(6.7)	5(4.2)	11(9.2)	0	3(2.5)	
	만족	10(8.3)	11(9.2)	6(5.0)	15(12.5)	9(7.5)	
직업가치	불만족	3(2.5)	4(3.3)	3(2.5)	2(1.6)	2(1.7)	$\chi^2=14.071$ P = 0.593
	보통	8(6.7)	7(5.8)	12(10.0)	7(5.8)	4(3.3)	
	만족	20(16.7)	14(11.7)	10(8.4)	12(10.0)	12(10.0)	
기자재 및 시설	불만족	12(10.0)	7(5.8)	3(2.5)	6(5.0)	4(3.3)	$\chi^2=23.200$ P = 0.108
	보통	10(8.3)	14(11.7)	18(15.0)	12(10.0)	9(7.5)	
	만족	9(7.5)	4(3.3)	4(3.3)	3(2.5)	5(4.2)	
환자와 신뢰 형성	불만족	0	2(1.7)	1(0.8)	1(0.8)	2(1.7)	$\chi^2=21.561$ P = 0.158
	보통	10(8.3)	11(9.2)	12(10.0)	10(8.3)	7(5.8)	
	만족	21(17.5)	12(10.0)	12(10.0)	10(8.3)	9(7.5)	
보수교육	불만족	13(10.8)	8(6.6)	5(4.2)	13(11.7)	9(7.5)	$\chi^2=27.293$ P = 0.038
	보통	13(10.8)	14(11.7)	13(10.8)	2(1.7)	7(5.8)	
	만족	5(4.2)	3(2.5)	7(5.8)	5(4.1)	2(1.7)	

표 8. 근무처에 따른 직무 만족도

만족요인	만족도	근무처 N(%)			
		종합병원	병원	일반의원	
직업전향	불만족	7(5.9)	15(12.5)	48(40.0)	$\chi^2=14.372$ P = 0.073
	보통	3(2.5)	1(0.8)	6(5.0)	
	만족	13(10.9)	6(5.0)	21(17.5)	
지식기술 적용	불만족	2(1.7)	6(5.0)	34(28.3)	$\chi^2=20.867$ P = 0.008
	보통	3(2.5)	5(4.2)	19(15.8)	
	만족	18(15.0)	11(9.1)	22(18.3)	
직업가치	불만족	1(0.8)	3(2.5)	10(8.3)	$\chi^2=23.438$ P = 0.003
	보통	6(5.0)	9(7.5)	23(19.2)	
	만족	16(13.4)	10(8.3)	42(35.0)	
기자재 및 시설	불만족	5(4.2)	3(2.5)	24(20.0)	$\chi^2=11.875$ P = 0.157
	보통	11(9.2)	15(12.5)	37(30.8)	
	만족	7(5.8)	4(3.4)	14(11.7)	
환자와 신뢰 형성	불만족	0	1(0.8)	5(4.1)	$\chi^2=7.827$ P = 0.451
	보통	23(19.1)	20(16.7)	32(26.7)	
	만족	16(13.3)	10(8.3)	38(31.7)	
보수교육	불만족	4(3.4)	5(4.1)	40(33.3)	$\chi^2=20.519$ P = 0.009
	보통	10(8.3)	11(9.2)	28(23.3)	
	만족	9(7.5)	6(5.0)	7(5.8)	

표 9. 근무처 소재지에 따른 직무 만족도

만족요인	만족도	근무처 소재지 N(%)						
		고흥	광양	구례	별교	순천	여수	
직업전향	불만족	10(8.3)	6(5.0)	0	4(3.4)	20(16.7)	30(25)	$\chi^2=26.560$ P = 0.148
	보통	2(1.7)	0	0	0	4(3.3)	4(3.3)	
	만족	7(5.8)	6(5.0)	3(2.5)	1(0.8)	16(13.3)	7(5.8)	
지식기술 적용	불만족	7(5.8)	3(2.5)	2(1.7)	1(0.8)	7(5.8)	26(18.3)	$\chi^2=28.093$ P = 0.107
	보통	2(1.7)	3(2.5)	1(0.8)	2(1.7)	13(10.8)	6(5.0)	
	만족	10(8.3)	6(5.0)	0	2(1.7)	20(16.7)	13(10.8)	
직업가치	불만족	1(0.8)	2(1.7)	0	1(0.8)	2(1.7)	8(6.7)	$\chi^2=18.640$ P = 0.545
	보통	4(3.3)	1(0.8)	2(1.7)	1(0.8)	15(12.5)	15(12.5)	
	만족	14(11.6)	9(7.5)	1(0.8)	3(2.5)	23(19.2)	18(15.0)	
기자재 및 시설	불만족	4(3.3)	3(2.5)	1(0.8)	3(2.5)	10(8.3)	10(8.3)	$\chi^2=32.532$ P = 0.038
	보통	9(7.5)	7(5.8)	2(1.7)	1(0.8)	20(16.)	24(20.0)	
	만족	3(2.5)	4(3.3)	0	1(0.8)	10(8.3)	7(5.8)	
환자와 신뢰 형성	불만족	0	0	0	0	2(1.7)	4(3.3)	$\chi^2=18.640$ P = 0.545
	보통	3(2.5)	5(4.2)	2(1.7)	2(1.7)	17(14.2)	21(17.5)	
	만족	16(13.3)	7(5.8)	1(0.8)	39(2.5)	21(17.5)	16(13.3)	
보수교육	불만족	4(3.3)	3(2.5)	2(1.7)	2(1.6)	14(11.7)	24(20.0)	$\chi^2=42.451$ P = 0.002
	보통	7(5.8)	6(5.0)	0	3(2.5)	24(20.0)	9(7.5)	
	만족	8(6.6)	3(2.5)	1(0.8)	0	2(1.7)	8(6.6)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별 만족요인에 대한 만족도는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을 12개월 이하, 13-30개월, 31-48개월, 49개월 이상의 4개 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직업전향에 대한 만족도는 1-12개월 군이 1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1-48개월 군이 1.7%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지식기술 적용에 대한 만족도는 13-30개월 군이 1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1-48개월 군이 3.3%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직업가치에 대한 만족도는 1-12개월 군과 13-30개월 군이 1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1-48개월 군이 5.8%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P>0.05$ ). 기자재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13-30개월 군이 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9개월 이상 군이 0.8%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 ). 환자와 신뢰형성에 대한 만족도는 1-12개월 군과 13-30개월 군이 1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1-48개월 군이 5.8%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 ).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13-30개월 군이 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9개월 이상 군이 0.8%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 ). 구체적인 내용은 <표 10>과 같다. 이러한 결과는 타 지역의 근무환경을 조사한 안소윤 등(2002)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로 외곽지역 병의원 물리치료사가 장기간 외곽근무로 인한 지역적인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사료 된다.

총 근무경력별 만족요인에 따른 만족도는 총 근무경력을 1-48개월, 49-96개월, 97-144개월, 145개월 이상의 4개 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직업전향에 대한 만족도는 1-48개월 군이 1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97-144개월 군이 2.5%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 ). 지식기술 적용에 대한 만족도는 1-48개월 군이 2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97-144개월 군이 4.2%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 ). 직업가치에 대한 만족도는 1-48개월 군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97-144개월 군이 5.8%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 ). 기자재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1-48개월 군이 1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45개월 이상 군이 0.8%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 ). 환자와 신뢰형성에 대한 만족도는 1-48개월 군이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97-144개월 군과 145개월 이상 군이 7.5%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 ).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1-48개월 군이 1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45개월 군이 0.8%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 ). 구체적인 내용은 <표 11>과 같다.

표 10.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에 따른 직무 만족도

만족요인	만족도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 N(%)				
		1-12개월	13-30개월	31-48개월	49개월 이상	
직업전향	불만족	27(22.5)	27(22.5)	8(6.7)	8(6.7)	$\chi^2=15.133$ P = 0.234
	보통	6(5.0)	2(1.7)	2(1.7)	0	
	만족	17(14.1)	12(10.0)	2(1.7)	9(7.5)	
지식기술 적용	불만족	19(15.8)	15(12.5)	4(3.3)	4(3.3)	$\chi^2=17.614$ P = 0.128
	보통	17(14.2)	5(4.2)	4(3.3)	1(0.8)	
	만족	14(11.6)	21(17.5)	4(3.3)	12(10.0)	
직업가치	불만족	5(4.1)	1(0.8)	0	0	$\chi^2=7.856$ P = 0.796
	보통	22(18.3)	17(14.2)	5(4.2)	6(5.0)	
	만족	23(19.2)	23(19.2)	7(5.8)	11(9.2)	
기자재 및 시설	불만족	19(15.8)	15(12.5)	5(4.2)	10(8.4)	$\chi^2=11.219$ P = 0.302
	보통	23(19.2)	16(13.3)	4(3.3)	6(5.0)	
	만족	8(6.6)	10(8.4)	3(2.5)	1(0.8)	
환자와 신뢰형성	불만족	5(4.1)	1(0.8)	0	0	$\chi^2=7.856$ P = 0.796
	보통	22(18.3)	17(14.2)	5(4.2)	6(5.0)	
	만족	23(19.2)	23(19.2)	7(5.8)	11(9.2)	
보수교육	불만족	19(15.8)	15(12.5)	5(4.2)	10(8.4)	$\chi^2=11.219$ P = 0.510
	보통	23(19.2)	16(13.3)	4(3.3)	6(5.0)	
	만족	8(6.6)	10(8.4)	3(2.5)	1(0.8)	

표 11. 총 근무경력에 따른 직무 만족도

만족요인	만족도	총 근무경력 N(%)				
		1-48개월	49-96개월	97-144개월	145개월 이상	
직업전향	불만족	37(30.8)	18(15.0)	8(6.7)	7(5.9)	$\chi^2=9.539$ P = 0.656
	보통	9(7.5)	1(0.8)	0	0	
	만족	23(19.1)	7(5.9)	3(2.5)	7(5.9)	
지식기술 적용	불만족	27(22.5)	7(5.8)	4(3.3)	4(3.3)	$\chi^2=19.312$ P = 0.081
	보통	17(14.2)	8(6.7)	2(1.7)	0	
	만족	25(20.9)	11(9.2)	5(4.2)	10(8.3)	
직업가치	불만족	7(5.8)	3(2.5)	2(1.6)	2(1.6)	$\chi^2=7.876$ P = 0.795
	보통	25(20.8)	9(7.5)	2(1.7)	2(1.7)	
	만족	37(30.8)	14(11.6)	7(5.8)	10(8.3)	
기자재 및 시설	불만족	15(12.5)	8(6.6)	1(0.8)	8(6.7)	$\chi^2=20.127$ P = 0.065
	보통	41(34.2)	13(10.8)	4(3.3)	5(4.2)	
	만족	13(10.9)	5(4.1)	6(5.0)	1(0.8)	
환자와 신뢰 형성	불만족	6(5.0)	0	0	0	$\chi^2=13.335$ P = 0.345
	보통	27(22.5)	16(13.3)	2(1.7)	5(4.2)	
	만족	36(30.0)	10(8.3)	9(7.5)	9(7.5)	
보수교육	불만족	27(22.5)	12(10.0)	5(4.2)	5(4.2)	$\chi^2=6.925$ P = 0.863
	보통	27(22.5)	10(8.3)	4(3.3)	8(6.7)	
	만족	15(12.5)	4(3.3)	2(1.7)	1(0.8)	

주당 근무시간 별 만족요인에 따른 만족도는 일주일 근무시간을 44시간 이하, 45-50시간, 51-55시간, 56시간 이상의 4개 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직업전향에 대한 만족도는 44시간 이하 군이 1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1-55시간 군이 2.5%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5$ ). 지식기술 적용에 대한 만족도는 44시간 이하 군이 2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1-55시간 군이 5.0%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5$ ). 직업가치에 대한 만족도는 44시간 이하 군이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5-50시간 군이 6.7%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05$ ). 기자재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44시간 이하 군이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5-50시간 군이 1.7%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05$ ). 환자와 신뢰형성에 대한 만족도는 44시간 이하 군과 56시간 이상 군이 1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4-50시간 군이 7.5%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5$ ).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44시간 이하 군이 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6시간 이상 군이 2.5%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5$ ). 구체적인 내용은 <표 12>와 같다.

1일 치료환자 수 별 만족요인에 따른 만족도는 1일 치료환자 수를 20명 이하, 21-35명, 36-50명, 51명 이상의 4개 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직업전향에 대한 만족도는 21-35명군이 1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명 이하 군과 51명 이상 군이 4.1%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05$ ). 지식기술 적용에 대한 만족도는 21-35명군이 1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명 이하 군이 5.8%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05$ ). 직업가치에 대한 만족도는 21-35명군이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명 이하 군이 5.8%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05$ ). 기자재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21-35명군이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1명 이상 군이 2.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05$ ). 환자와 신뢰형성에 대한 만족도는 21-35명군이 2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명 이하 군이 5.0%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

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 ).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21-35명군이 1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명 이하 군이 0.8%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 ). 구체적인 내용은 <표 13>과 같다. 이상의 근무환경 요인별 만족도의 비교는 전제균(1991)의 연구에서와 같이 직무만족 요인별 만족도 분석을 전체 요인별로 분석하지 않고, 평균 점수를 계산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요인 7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분석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각 요인별로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다.

표 12. 주당 근무시간에 따른 직무 만족도

만족요인	만족도	주당 근무시간 N(%)				
		44시간 이하	45-50시간	51-55시간	56시간 이상	
직업전향	불만족	10(8.3)	11(9.2)	22(18.4)	27(22.5)	$\chi^2=32.192$ P = 0.001
	보통	3(2.5)	0	3(2.5)	4(3.3)	
	만족	20(16.7)	4(3.3)	3(2.5)	13(10.9)	
지식기술 적용	불만족	3(2.5)	4(3.3)	14(11.7)	21(17.5)	$\chi^2=36.620$ P = 0.000
	보통	5(4.2)	1(0.8)	8(6.7)	13(10.8)	
	만족	25(20.9)	10(8.4)	6(5.0)	10(8.3)	
직업가치	불만족	2(1.7)	3(2.5)	3(2.5)	6(5.0)	$\chi^2=18.106$ P = 0.113
	보통	7(5.8)	4(3.3)	11(9.2)	16(13.3)	
	만족	24(20.0)	8(6.7)	14(11.7)	22(18.3)	
기자재 및 시설	불만족	5(4.2)	6(5.0)	11(9.2)	10(8.4)	$\chi^2=16.646$ P = 0.163
	보통	19(15.8)	7(5.8)	11(9.2)	26(21.7)	
	만족	9(7.5)	2(1.7)	6(5.0)	8(6.6)	
환자와 신뢰 형성	불만족	0	0	4(3.3)	2(1.6)	$\chi^2=21.924$ P = 0.038
	보통	12(10.0)	6(5.0)	11(9.2)	21(17.5)	
	만족	21(17.5)	9(7.5)	13(10.8)	21(17.5)	
보수교육	불만족	8(6.7)	2(1.6)	15(12.5)	24(20.0)	$\chi^2=26.860$ P = 0.008
	보통	15(12.5)	8(6.7)	9(7.5)	17(14.2)	
	만족	10(8.3)	5(4.2)	4(3.3)	3(2.5)	

표 13. 1일 환자 치료 수에 따른 직무 만족도

만족요인	만족도	1일 환자 치료 수 N(%)				
		20명 이하	21-35명	36-50명	51명 이상	
직업전향	불만족	3(2.5)	28(23.4)	19(15.9)	20(16.7)	$\chi^2=14.851$ P = 0.250
	보통	2(1.7)	3(2.5)	2(1.7)	3(2.5)	
	만족	5(4.1)	21(17.5)	9(7.5)	5(4.1)	
지식기술 적용	불만족	1(0.8)	16(13.3)	11(9.2)	14(11.7)	$\chi^2=19.038$ P = 0.088
	보통	2(1.7)	14(11.7)	5(4.2)	6(5.0)	
	만족	7(5.8)	22(18.4)	14(11.6)	8(6.7)	
직업가치	불만족	1(0.8)	2(1.7)	4(3.4)	7(5.8)	$\chi^2=20.343$ P = 0.061
	보통	2(1.7)	14(11.7)	10(8.3)	12(10.0)	
	만족	7(5.8)	36(30.0)	16(13.3)	9(7.5)	
기자재 및 시설	불만족	1(0.8)	12(10.0)	8(6.7)	11(9.2)	$\chi^2=12.561$ P = 0.402
	보통	5(4.2)	28(23.3)	16(13.3)	14(11.7)	
	만족	4(3.4)	12(10.0)	6(5.0)	3(2.5)	
환자와 신뢰 형성	불만족	0	1(0.8)	1(0.8)	4(3.3)	$\chi^2=17.697$ P = 0.125
	보통	4(3.3)	23(19.2)	9(7.5)	14(11.7)	
	만족	6(5.0)	28(23.3)	20(16.6)	10(8.4)	
보수교육	불만족	2(1.6)	19(15.9)	16(13.3)	12(10.0)	$\chi^2=19.462$ P = 0.078
	보통	7(5.8)	18(15.0)	11(9.2)	13(10.8)	
	만족	1(0.8)	15(12.5)	3(2.5)	3(2.5)	

#### 4.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한 결과, 후생복지 제도와 환자와 신뢰형성, 1명당 치료시간, 보수교육, 1일 치료환자수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허영배 등(2002)이 물리치료사의 역할 관련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효과성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고,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역할 갈등, 역할 모호, 육체적 부담 등을 제시하였다. 안소운 등(2002)의 연구에서는 근무환경에 따라 직무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병원급 보다는 의원급, 물리치료실의 위치, 동료 물리치료사와의 관계, 1일 환자 수, 주당 근무시간 등을 제시하여 본 연구 결과와 매우 일치한 결과를 보였다.

표 14 .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회귀분석결과

	표준화 계수	t	p
상수		1.638	0.104
후생복지제도	0.315	4.792	0.00
환자와의 신뢰형성	0.371	6.220	0.00
1명당 치료시간	0.222	3.514	0.001
보수교육	0.191	2.732	0.007
연령	0.037	0.458	0.648
물리치료사 수	-0.016	-0.177	0.860
일주일 근무시간	-0.010	-0.040	0.968
연봉	-0.67	-0.924	0.358
침대 수	0.42	0.475	0.636
1일 치료환자 수	-0.198	-3.333	0.001
총 근무경력	-0.069	-0.820	0.414
현 근무처 근무기간	0.073	0.96	0.339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전남 동부권 지역 일부물리치료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남 동부 육권지역 전체 물리치료사를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또한 종합병원·병원·일반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복지기관이나 보건소 등 좀 더 포괄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고, 설문기간 중 병원에 직접 방문하였을 때 바쁘다거나 기타 이유로 설문지 작성 거부 한 물리치료사와 조사기간 동안 개원한 병원 또는 폐원한 병원으로 인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수가 정확하다고 할 수 없고, 마지막으로 설문지 내용 중 직무 만족도를 Likert 5점 척도로 하였는데, '매우 원한다', '약간 원한다' 등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한 답을 제시하여 응답자의 생각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 IV. 결론

본 연구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물리치료사 중에서 연구시점 현재에 전남 동부권 지역에 병의원에 종사하는 물리치료사 129명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근무환경, 직무 만족도를 조사하여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만족도와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른 지역 물리치료사와 비교하여 전남 동부권 지역의 물리치료사에 대한 업무환경과 업무량을

평가하여 이들의 작업환경과 근무조건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직무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직접전달 및 자기 기입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회수된 설문지는 120부로서 회수율 93%이었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조사 대상자 총 120명중 남자는 50.8%이며 여자는 49.2%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는 26~30세 군이 35%로 가장 많았으며, 41세 이상이 5.8%로 가장 낮았다. 최종학력은 대학 졸이 68%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은 30%, 대학원 졸은 1.7%순이었다. 물리치료사 수는 1명이 25.8%로 가장 많았고, 5명 이상이 15%로 가장 적었다. 근무처는 일반의원이 62.5%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이 19.2%, 병원이 18.3%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병원의 근무경력은 1~12개월이 41.7%로 가장 많았으며, 31~48개월이 10%로 가장 적었다.

2. 물리치료사의 직무 만족요인에 대하여 가장 높은 만족을 보인 것은 직업가치로 56.7%를 나타내었고 환자와의 신뢰형성이 53.3%의 만족을 보였다. 보수교육은 18.3%로써 가장 낮은 만족을 보였으며 기자재 및 시설은 20.9%의 만족을 보였다. 지식기술 적용과 직업 전망은 각각 42.5%, 33.4%로 낮은 만족을 보였다. 따라서 직무 만족도는 평균 3.04(5점 척도)점으로 측정되어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일반적인 특성과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지식기술 적용의 만족도 항목에서 남자가 28.3%, 여자가 14.2%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식 기술 적용에 대한 만족도는 31-40세 군이 1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1세 이상 군이 5.0%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

4. 근무환경 요인에 따른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직업가치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의원이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병원은 8.3%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종합의원이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병원은 5.0%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여수와 고흥이 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별교가 0%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

5.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회귀 방정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후생복지 제도와 환자와 신뢰형성, 1명당 치료시간, 보수교육, 1일 치료환자수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김명훈: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대한물리치료사학회지, 8(1), 107-114, 2001.

김희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의 직무 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원광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라기용, 오영택, 문향미 등: 한국물리치료사의 근무현황 조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10(1), 229-239, 1998.

어경홍, 이충휘: 물리치료사의 직무 만족도와 인식도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지, 7(2),

567-579, 1986.

안소윤, 김원중, 허영배: 물리치료사의 근무실태와 직무만족 및 직장애착, 대한물리치료학회지, 14(4), 253-264, 2002.

이상미: 간호사의 직무특성과 개인의 성격이 직무 스트레스,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25(4), 790-806, 1995.

이지현, 손애리: 물리치료사의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대한물리치료사학회지, 10(2), 153-162, 2003.

이충휘: 물리치료사의 업무관련 스트레스, 대한물리치료학회지, 2(1), 65-74, 1990.

전계균: 물리치료사의 근무실태와 직무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3(1), 9-32, 1991.

최덕호: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992.

최계영: 병원 간호조직풍토와 간호사 직무만족도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하경기. 사회복지시설 직무환경개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 석사 학위 논문, 2000.

한금립: 물리치료사의 업무성 스트레스 유발요인과 직무만족도와의 상관관계,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허영배: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조직 효과성, 인제대학교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Blegen MA: Nurse's job satisfaction, Ameta-analysis of related Variables, Nursing research, 42(1), 36-41, 1993.

Kahn RL: Production and job satisfaction, Personnel Psychology, 275-289, 1965.

McCraine EW, Lambert VA and Lambert C: Work stress, hardiness, and burnout among hospital staff nurses, Nursing Research, 36(6), 374-378 1987.

McDermott D: Professional burnout and its relation to job characteristics, satisfaction, and control. Journal of Human stress, 10(2), 79-85, 1984.

Porter LW, Lawler EE: Managerial attitudes and performance. Homewood,III; Richard D, Irwin, 165. 1968.